

安東 臨淸閣의 文字形態에 나타난 意味와 宅法에 관한 研究

張百基

(釜山大學校 博士課程 修了)

曹成基

(釜山大學校 建築工學科 教授, 工學博士)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조선시대의 전통주택 가운데 文字形 주택으로 불리우는 집들이 있다. 문자형 주택이란 주택의 평면 형태가 문자의 모양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예컨대 用자형이라 불리는 安東의 臨淸閣¹⁾이나, 巳자형이라 하는 臨河의 내앞(川前) 宗家²⁾, 그리고 良洞의 香壇³⁾이 대표적인 문자형 집의 예에 속한다. 이 집들은 조선시대 巨儒의 종가로서, 吉地로 알려진 明堂에 자리한 주택이며, 가문의 번창을 이루는데 일조 했다는 풍수지리적 해석 또한 관심을 끈다.

이 집들은 규모가 일반 주택과 다르고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주택 설계에 있어서도 특별함이 예상된다.

전통주택의 배치에는 일반적으로 사랑채가 안채의 앞쪽에 있는 것이 정통적이다. 그러나 임청각, 내앞 종가, 향단 등의 사랑채는 안채의 앞쪽에 위치하지 않고, 안채의 옆에 있거나 안채의 좌 혹은 우로 등을 대고 있다. 또한 間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안채의 배치 순서를 탈피하여 예사롭지

가 않다. 택법을 통하여 이해하려 하여도 택법의 기본원리인 동서사택법과 일치하지 않는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자형 주택은 평면형태에서부터 내부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규범을 벗어나며, 이해되지 않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자형 주택 가운데에서도 임청각은 초기에 속하며, 규모가 장대하고 품위가 있다. 임청각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살림집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물 배치는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 을 지니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임청각은 안채를 중심으로 한 채씩 배치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안·사랑·행랑이 모두 연속되어 있다. 그래서 채와 채의 경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의 배치에서 별당으로 지어진 큰사랑채(군자정)와 사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품취를 보여준다. 임청각은 군집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배치의 규범과 격식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임청각이 조선시대 주택의 일반적 질서를 뛰어넘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조선시대 살림집의 공간적 패턴을 초월함과 동시에 그것이 유래를 찾기 힘든 특이한 구조를 지향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을 갖게 된다.

1) 固城 李氏 法興 宗宅, 李洸이 1519(중종 14년) 창건

2) 義城金氏 川前 宗家, 1857년 경으로 추정

3) 驪江 李氏 香壇派 宗宅, 晦齋 李彦迪이 1543~1545년 경에 조영한 것으로 추정. 良洞의 香壇은 관찰자들이 日, 月, 用, 巴, 興字 등 여러 가지 문자형을 말하고 있어서 어떤 문자형 구조 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옛사람의 집을 해석하는 데에는 그 시대의 전통사상과 전통 문화가치적 시각에 접근해야 한다.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는 조선시대의 사상적 근원과 문화가치를 이해하고, 조선시대의 건축학적 체계에 기반한 건축계획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주거가치적 관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사상적 체계는 동양학적 사유가 주된 흐름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논리적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동양사상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대건축과의 관계를 드러내어야만 조선시대의 건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건축학과 건축 제반에 유무형으로 전통건축이 배여 있으며 그것의 재구성과 현대건축의 뿌리인 전통건축의 정신을 올바르게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현대적 관점의 해석이 추가되고 조정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상과 시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건축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학문적 뿌리와 줄기 그리고 그에 따른 문헌을 살펴야 한다. 조선시대 과학적 사유의 기준이 되었던 易의 原理와 건축설계의 원칙이 되었던 風水地理와 宅法 그리고 實學者의 문집 등을 통하여 부분적이지만 文字形住宅에 대한 의문을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임청각의 문자형 구조에는 어떠한 사상적 배경이 있으며, 설계에서 문자형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지, 임청각의 택법과 문자형 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임청각의 문자형태에 나타난 사상적 의미와 주택설계의 법칙인 宅法에 국한하고자 하며, 임청각의 생활규범과 의례적 특징 및 양반문화의 권위와 사치 그리고 주종관계를 구분하는 공간분할 등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2. 文字形 住宅의 思想的 背景

2-1 風水地理의 物形論⁴⁾

(1) 物形論과 文字形 住宅構造의 象徴性

4) 村山智順은 「朝鮮의 風水」에서 「風水地理의 物形論」을 「風水類形」이라 이름하였으며, 朝鮮人의 「物形에 대한 信賴性」을 「類形 信仰」이라 하였으나, 개념 정리와 용어 구사가 적절하지 못하다.

주택의 문자형은 풍수 물형론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물형이란 풍수지리에서 땅의 모양을 사물의 형태에 비유한 것이다. 대체로 묘자리나 집자리를 잡을 때, 龍·穴·砂·水⁵⁾의 분석을 통하여 땅의 길흉을 해석하고, 穴과 明堂, 四神砂⁶⁾의 성격을 규정한다.

땅의 성격이 규정되면, 동물이나 식물 등 物象에 비유하고 땅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연의 물건이나 현상을 본떠서 땅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름을 붙여 名稱化 한 것을 물형이라 하는데, 물형론은 옛날부터 풍수지리에서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의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⁷⁾

이런 까닭으로 물형의 명칭이 부여되는 것은 陰宅⁸⁾이나 陽宅⁹⁾의 성격과 길흉을 말하는 하나의 表象이 된다. 「방편으로서 길흉의 표상」이란 易의 形而下學에서 卦의 모양(象)에 따라서 길흉을 해석하고 卦象의 변화에 따라 길흉의 추이가 달라지듯 그 집의 길흉을 말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 물형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易의 형이하학적 과상과 같이, 인간의 길흉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상징성을 갖추는 것이다.

주택의 문자형은 그 주택의 형태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생활의 결과인 길흉을 예고하고 가문의 미래를 상징하는 旗幟¹⁰⁾가 된다. 그러나 이는 풍수지리의 砂論¹¹⁾에서 언급되는 일반적 이

5) 용·혈·사·수는 풍수지리의 形(勢)論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이다. 龍은 산 또는 땅의 흐름 즉, 산맥 또는 지맥을 말한다. 穴은 용의 脈 중에서 山水의 기운이 모여 응결한 곳으로서 전체 局의 중심이 된다. 砂는 혈을 둘러싸는 주위 山의 形勢를 말한다. 水는 혈 주위의 물의 形勢 즉, 물이 흐르는 모양과 기운을 말한다.

6) 명당은 묘자리나 집자리를 말한다. 혈 앞의 평탄한 땅이며, 청룡과 백호 조산과 안산으로 둘러 쌓인 평지이다. 위치에 따라 내명당과 외명당으로,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누어진다. 사신사는 혈의 사방 즉, 전·후·좌·우의 산을 말한다. 砂라고도 한다.

7) 물형은 와우형, 장군대좌형, 옥녀단장형, 완사명월형, 연화부수형, 금구물니형, 행주형, 청학동의 청학, 우복동의 우복, 등이 있으며, 물형의 유래는 대체로 신라시대 석탈해의 경주 반월성지 찬탈 설화에 나오는 초승달형, 선덕여왕의 옥문지와 여근곡 설화 등으로 보고 있다.

8) 음택 : 묘(死者幽宅)

9) 양택 : 집(生者居宅)

10) 기치 : ①지난 날 軍中에서 쓰던 온갖 기 ②어떤 목적을 위하여 표명하는 대도나 주장 ③기에 나타난 標識.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0

해이며, 풍수지리의 본의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2) 風水地理와 人法地의 原理

形而下學의 풍수지리에 의하면, 땅의 종류 즉 땅의 물형에 따라 인간의 길흉과 운명이 달라진다.

「人子須知」에 의하면

“산이 厚하면 사람이 넉넉하고, 산이 마르면 사람이 주리(飢)고, 산이 맑으면 사람이 귀하고, 산이 쪼개(破)지면 사람이 비관하고, 산이 따르(歸)면 사람이 모이고, 산이 달아나(走)면 사람이 떠나고, 산이 유장하면 사람이 씩씩하고, 산이 오그라들(縮)면 사람이 천하고, 산이 밝으면 사람이 영달하고, 산이 어두우면 사람이 우매하고, 산이 순하면 효자가 나타나고, 산이 거슬리면 샛된(欺)사람이 나타난다”¹²⁾

고 하듯이 사람의 맑고 흐림, 아름답고 추함, 빈부와 귀천, 요절과 장수, 자손이 많고 적음 등이 모두 땅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¹³⁾

이것은 대개의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말이다. 또는 좋은 땅에는 맑은 人才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다.

「雪心賦」에

“땅이 神靈스러우면 사람이 훌륭한(地靈人傑)”¹⁴⁾

하였으며, 「擇里志」에는

“훌륭한 사람은 땅의 神靈스런 기운으로 태어난다(人傑地靈)”¹⁵⁾

고 하였다. 이것은 풍수의 이론적 체계와 물형의 개념을 요약한 개설이다. 이러한 사상은 老子 道德經의 ‘사람은 땅의 이치를 본받는다(人法地)’와 통한다. 老子는

“사람은 땅의 이치를 본받고 땅은 하늘의 이치를 본받고 하늘은 道理를 본받고 道理는 자연의 마땅함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¹⁶⁾

고 하였다. 그리고 「易 繫辭傳」에서

“우르러 天文을 보고 구부러서 地理를 살핀다(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¹⁷⁾

고 하였다. 이 말의 형이상학적 해석은 마음의 體用을 말한 것으로서, 性稟과 七情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 둘은 불가분이며, 하나의 둘이요 둘의 하나임¹⁸⁾을 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이하학적 의미를 채택하였다. 儒家의 孟母三遷之敎나 佛家の 육조대사의 도량 건립 일화¹⁹⁾에 나타나듯 음택이나 양택을 조성함에는 生氣가 모이고 나타나는 길지를 구하여 택할 뿐 아니라, 그 땅의 형세를 통한 물형에 의지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땅을 선택하여 집을 지을 때에는 땅의 이치에 합하는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실현에는 맑은 지혜가 따라야 하기에 땅의 이치에 거슬리지 않는 집은 옛집 가운데에서도 드문 것이다.

주택의 조영에서 풍수지리와 대자연의 법칙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본의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일반인을 위하여 물형의 논리가 채택되는 것이다. 이것은 老子가 ‘사람이 땅의 이치를 본받는다(人法地)’라 한 것으로써 주택이 대자연의 마땅함을 본받음에 대한 母源으로 삼는 까닭이 된다.

2-2 宅法과 文字形 住宅

(1) 宅法과 文字形 住宅 構造

조선시대의 문자형 주택에는 택법을 모체로 하고, 집의 평면이 문자의 모양을 따르며, 그 문자의 모양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물형과 문자형은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相異한 점이 보인다.

주택의 문자형 구조는 집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11) 風水地理의 이론적 분류는 理氣論과 形(勢)論으로 大別된다. 形(勢)論은 ‘山局圖’의 明堂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龍·穴·砂·水의 形象에 대한 해석법이며, 理氣論은 陰陽論과 五行論을 중심으로 하는 吉凶 판단의 原理에 대한 해석법이다. 砂論은 龍·穴·砂·水 중에서 砂에 대한 것이며, 혈 주위 山의 모양과 세력에 대한 해석법이다.

12) 山厚人肥 山瘦人飢 山清人貴 山破人悲 山歸人聚 山走人離 山長人勇 山縮人低 山明人達 山暗人迷 山順人孝 山逆人欺, 徐善繼·徐善述, 地理 人子須知 卷五下 砂法 口議

13) 村山智順·崔吉城역,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p.197

14) 「雪心賦 正解」, 券一, p.2 「地靈人傑 氣化形生」

15)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條, 「然 人傑地靈 亦自不少」

16) 「道德經」上 第25, 混成章: - 前略 -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7) 「易 繫辭上傳」第4章

18) 一之二 二之一, 栗谷 全書 참조

19) 「法寶壇經」序文 참조

서 택법의 한 유형에 속한다. 풍수지리를 분석하고 물형을 파악하며, 명당을 정하는 일을 입지선정이라 하면, 입지선정 후, 주택의 구상에서 立身揚名을 위한 육구중축의 한 방편으로 문자형이 나타난 것이다.

조선시대에 주택의 설계구상에 필요한 원리와 기본을 제시하는 것이 택법인데, 일명 陽宅論이라 하기도 한다. 택법이란 주택의 길흉을 보는 방식이며 吉宅 조성의 길잡이이다.

陽宅書의 이론은 風水地理書와 달리, 마당을 중심으로 채와 간을 배치하는 방법이 주가 되며, 東西四宅法(4-1, (1)참조)의 방위와 길흉 보는 법이 그 대강이 된다. 여기서 길흉이란 自然環境과의 造化를 의미한다.

택법에서 채의 배치는 마당을 비워 놓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방식이므로 주택의 배치가 당연히 口자 모양을 따르게 된다. 孫瑜憲의 『易斷繪圖民宅三要』에 나타난 문자형태를 보면, 한 자(各道一字屋圖式), 기역자(曲尺制, 三頭房 형식), 두 자, 디근자(ㄱ자, 소규모 民宅), 입 口자(靜宅), 날 日자(二院 動宅)의 예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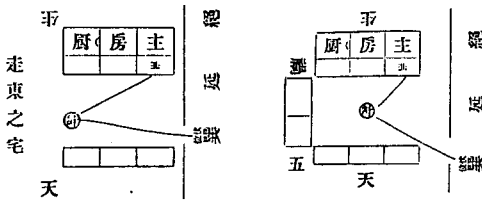


그림 1. 두 자, 디근자형 주택평면도

주택의 설계과정은 口자형 배치의 변형과 확대 작업이 되고, 口자의 조합방식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므로 집의 모양은 자연히 문자의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문자형 구조의 집은 조선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화를 꾀하는 조선인의 과학적 思惟로 이해된다.

가족 구성과 주거 규모 등을 추론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마당이 하나이면 口자형과 그 변형을 취하게 되고, 마당이 둘 이상이면 日자형과 그 변형을

을 취하게 된다.

用處에 따라 집의 꼴이 변용 되는 것은 조화와 순응의 원리에 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풍수지리와 택법의 원리를 채택하여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집의 구조가 표상화 되고 일반화 된다. 일반적 집의 모양은 口자형에서 완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日자, 用자, 巳자 등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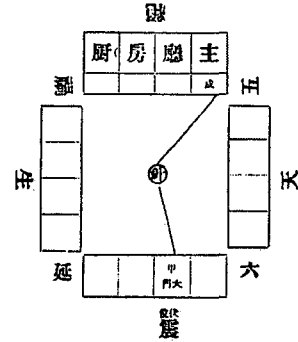


그림 2. 입 口자형 주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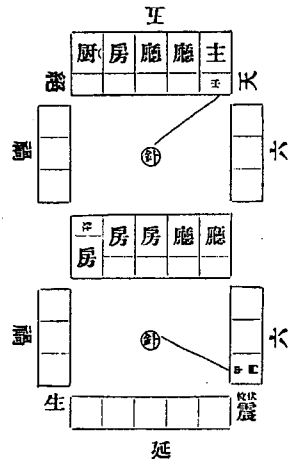


그림 3. 날 日자형 주택평면도

설계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크게 짓는 경우가 있으며, 식구의 증가와 宗家の 정체성을 위해 증축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조선시대의 문자형 주택이라 불리는 집들은 이 '문자에 기반한 물형 주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이 인위적 문자형 주택의 출현 배경인 것이다.

조선 주택에 있어서 문자형 집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갖춘 데에는 이와 같은 건축주의 주관에 반

20) 孫瑜憲, 『易斷繪圖民宅三要』 6冊, 慶南 密陽, 竹訥窩, 1929. 마당이 하나인 집을 靜宅이라 하며, 마당의 수가 둘에서 다섯까지를 動宅이라 하며, 마당이 둘인 집을 二院 動宅이라 한다.

영된 것이라 하겠다.

(2) 文字形 構造와 吉凶의 法則

「山林經濟志」卜居篇과 「林園經濟志」相宅志에

“무릇 집을 지을 때 그 형상이 日·月·口와 같이
吉한 글자를 담은 것은 吉하고, 工·尸의 글자와 같
은 것은 不吉하다”²¹⁾

하였다. 이 구절은 집을 지을 때에 吉한 의미의
글자 모양으로 지으면 福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
해했으며, 凶한 의미의 글자 모양으로 지으면 禍
가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문자의 吉象과 凶象을 논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문자형 주택은 풍수지리와 택법
을 따르되 發福의 의미와 차별적 가치관의 발로로
써 일부 계층의 특질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
이 길상을 추구하는 것은 풍수지리와 택법의 원리
와 통하지만 그 연원을 동양사상의 형이하학에서
빌려온 것이다.

易理에 ‘象과 法則’의 原理²²⁾가 있다. 象이란 사
물의 조직이나 운용의 형태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상(image)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象은
物形과 사람의 인식 내용 즉, 思想도 象에 속하는
것이다.

「易 繫辭傳」에

“易이라 함은 象이요, 象이라 함은 모양을 본뜬 것
이다.(易者象也 象也者像也)”²³⁾

고 하였으며,

“聖인이 사물의 본원을 깊이 보고 그 형용을 건주
어 보며, 有無形의 마땅함을 형상했기 때문에 象이라
고 한다(聖人 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²⁴⁾

고 하였다. ‘그 形容’이라 함은 象을 말하고, ‘물건
의 마땅함’이란 法則과 自然²⁵⁾을 말한다. 다시 말
해 象과 법칙은 서로 表裏가 되는 것이다. 象과
법칙의 표리 관계로 인하여, 법칙을 유추함으로써
象을 알 수 있고 또한 象을 관찰함으로써 그 법칙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象과 법칙은 표리관계, 또는 一物의
양면작용으로 해석된다. 바꾸어 말하면 象과 법칙
은 논리 개념의 확립을 위해 두 개의 개념으로 나
타나지만 실은 한 이치의 두 이름에 해당한다. 그
런 까닭으로 李栗谷은 “天地의 이치는 하나의 둘
이요, 둘의 하나(一之二요 二之一이니라)”라고 하
였다.²⁶⁾

문자형 주택에 채용하면, 象이란 주택의 문자형
으로 나타나고, 법칙이란 그 속에 恒常하며, 그 속
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작용
에서 사람들은 吉凶禍福을 이룸짓는다. 이것을 요
약하면, 문자형 주택은 ‘象에 따라 길흉화복이 일
어난다’는 원리에 準據하였으며, ‘吉象의 住宅에는
福이 있고 凶象의 住宅에는 禍가 있다’는 관념 속
에서 일반적 주택사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2-3 吉宅의 造成과 文字形 住宅

陰陽五行, 風水地理, 宅法 등의 이론에 근거하여
집을 짓게 되면, 문자형 구조의 집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집의 형태가 자연스레 문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문자형태의 틀이 정해지
면 주택의 평면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
나 吉象의 문자 형태라 하더라도 채와 間의 배치
와 용도 등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옛 건축주와 건축가들이 단순히
문자의 형태에 의존하여 설계한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문자형 구조의 집이란 대체로 그 골격
이 문자의 추구에 있는 것이지만, 실용과 건축가
의 主見이 반영되었기에 문자형만을 위한 집이 조

21) 洪萬選, 「山林經濟」, 卜居, 도서출판 민족문화 영인본(1986),
徐有桀, 「林園經濟志」, 相宅誌, 보경문화사, 1983.

22) 萬物은 그 組織의 系統이 동일하고, 그 運行的 階도가 일
정하다. 그러므로 萬物은 비록 부단히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
화와 작용 속에는 반드시 일정한 規準과 順序가 있다. 이 規準
과 順序는 물건 사이에도 차이가 나거나 다르지 아니 하니, 易
에는 이것을 가리켜 ‘法’ 또는 ‘則’이라고 하며, 이른바 自然法則
이다. 易學에서는 이러한 법칙을 闡明하기 위하여 사물의 象을
취하여 이론의 근거를 삼았다. 韓長庚, 「易學原論」, 學友社,
1950, p.p 2~4

23) 「繫辭 下傳」, 第三章

24) 「繫辭 上傳」, 第8章, 「繫辭 上傳」, 第12章

25) 自然이란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하며 누구(조물주)가 있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란 큰 법칙에 의해 스스로 그
렇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老子의 道法自然
과 통한다.

26) 율곡전서 참조

성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문자형의 틀에만 맞추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吉祥文字의 추구라는 건축사상의 한 기반을 형성한 것이라 하겠다.

(1) 吉宅과 文字 形態

주택계획이란 陰陽과 五行의 기운을 조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吉宅이란 것도 역시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 잘 조화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길택에 사는 사람도 吉氣의 영향을 받아 음양오행과 화합하는 기운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풍수지리와 음양과 오행이 각기 다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셋은 한 근원에서 나와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본원에 합하려는 근본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면형이 때로는 완전한 문자의 형태로, 때로는 변형된 문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宅法과 風水地理 등의 원리를 등지는 이론으로 집을 지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나름대로 택법과 풍수지리의 원리에 합하려 했던 노력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즉, 사람들은 주거의 이상형을 꿈꾸며, 吉祥을 원하고 發福을 추구하는 심정적 욕구로써, 택법이나 풍수지리 또는 음양오행의 이치에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집에는 심정적 욕구를 표상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도, 그 욕구를 自然之理에 배치되거나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먼저 自然之理를 생각하여 그 골격을 세우고 욕구의 옷을 입히되, 욕구의 흔적이 숨겨져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自然順應의 근본사상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用途와 文字 形態

집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 위치 선정과 용도를 우선한다. 문자형 주택을 조성했다라도 이는 집의 용도 개념을 우선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을 짓는 데는 문자의 선정이 우선이 될 수 없고, 집의 용도에 기반하여 문자의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역지로 문자에 끼워 맞추기 위해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겠다. 용도와 문자가 상충되었을 경우 文字形을 뒤로하고 용도를 根幹으로 집을 짓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3) 變容과 文字 形態

자연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建築理念에 부합하는 좋은 집이라 할 수

있다. 문자형 구조의 집도 문자의 吉象을 응용하되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집은 건축조영의 원칙에 의해 지어지지만 때와 장소에 맞는 변용이 필요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건축주와 건축가의 지혜라 할 것이다. 이는 建築現實이 建築理念에 봉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집의 구조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가감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변용이 일어나고 언제나 새로운 형상을 추구하게 된다. 새로운 용도가 요구될 때에는 형태도 새롭게 변화한다. 서재, 창고, 서당, 별당 등의 변용에 의해서 전체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변용이나 가감을 할 때에도 풍수지리와 택법 기타 원리에 맞추어 고치는 것이 일상적이다. 옛 집에서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로는 증축과 변용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자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4) 東俗과 文字形 住宅

조선시대에는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인 한문 외에 한글이 있었으며, 예절에 있어서도 周禮와 법식이 다른 東禮가 있었듯이 풍수지리와 택법에도 중국과 다른 東俗文化가 있었다.²⁷⁾ 이와 같이 길흉화복과 관련된 문자적 특성은 吉祥의 의미가 강조되며 민속문화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고려청자가 나타난 배경에는 玉이 있다. 玉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吉祥으로 여겨졌다. 그런 까닭으로 고려인들은 흙으로 玉을 빚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고려청자는 흙으로 玉을 빚으려다 실패한 흔적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그러나 고려청자는 그 모습 그대로 뒷사람의 찬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자형 주택도 문자적 길흉과 택법, 풍수지리가 어우러진 실패작일지 모른다. 그러나 문자형 주택 東俗形의 주택으로 남아있는 전통문화인 것이다. 문자의 吉象에 부합하고자 하는 민속문화가 택법과 풍수지리 등의 원리와 자연스럽게 화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3. 臨淸閣의 文字形

3-1 현황

27) 周禮 : 중국 周나라 시대의 예절, 東禮 : 古代(檀君 朝鮮)로부터 新羅와 高麗를 통하여 전승되어 온 朝鮮의 禮節, 東俗 : 古代로부터 新羅와 高麗를 통하여 전승되어 온 朝鮮의 風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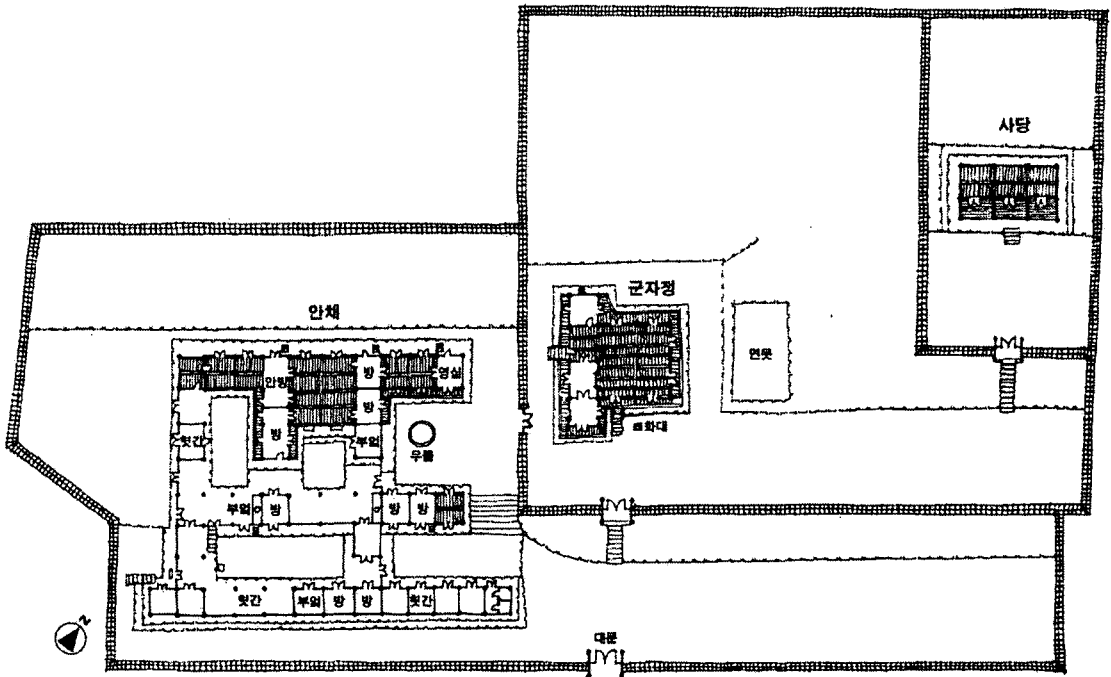


그림 4. 임청각 배치도

임청각은 固城李氏 安東入鄉組인 李增의 제3자인 李洸이 1519년(중종 14년) 창건한 固城李氏 法興宗宅이다. 임청각은 영남산 기슭에 배산임수하여 낙동강이 왼쪽에서 돌아 흐르며, 청용이 되는 무협산이 정다우며 멀리 강건너 문필봉인 낙타산 연봉이 수려하여 옛사람들이 花山絶景이라 칭한 명당이다. 임청각은 원래 99間이라 하며 日月이 합친 문자형으로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영하였는데, 일제시대에 이 집 앞으로 철길을 내그대료가 주택문화의 한 장르로써 오늘에 숨쉬는

기 위하여 두 줄로 되어있던 바깥 행랑채와 정문 樓臺는 철거해 없어지고 현재 60여 間만 남아있다.²⁸⁾

임청각은 ‘쓸 用’자형 안채와 별당으로 구성된 君子亭(보물 제182호) 그리고 사당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임청각의 안채는 다섯 개의 마당을 가지고 있다. 군자정(보물 제182호)은 평면 형태가 丁자형이며, 구조는 다락집형이다.²⁹⁾ 군자

정 동쪽으로 연못과 사당이 있다. 사당은 별도의 지맥을 가지고 있어서 임청각과는 다른 좌향을 가진다. 임청각은 亥坐巳向이며 사당은 壬坐丙向이다.(그림4 참조)

임청각의 문자형 구조에 대한 해석은 村山智順의 「朝鮮의 風水」에서 처음 다루어졌으며, 많은 연구자가 비판 없이 따르고 있다.

3-2 臨淸閣의 文字形

임청각의 문자 형태는 ‘쓸 用’자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중에는 이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청각을 用자형태로 보는 연구자는 村山智順과 玄斗鎔과 김광언 그리고 주남철이다. 그러나 用자 중에서도 村山智順과 김광언은 用자 正字를 말하고, 玄斗鎔은 用자 篆字體를 주장한다. 그리고 주남철은 구체적인 논의 없이 村山智順의 吉祥文字에 동의하므로 用자 正字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1) ‘쓸 用’字 正字說

村山智順은 「朝鮮의 風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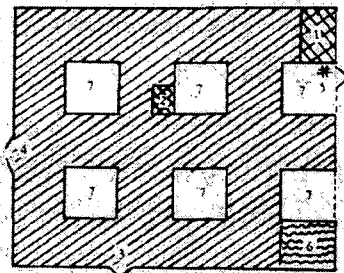
28) 固城李氏安東宗會, 「固城李氏安東尊居 淵源과 文化遺産」, 1993, p.2

29) 신영훈은 ‘군자정은 다락집형이나 누마루 높이가 낮다. 그런 유형을 지금은 양청형이라 부른다. 조선왕조 왕궁의 여름 침실용으로 조영하던 유형과 같은 계열이다’ 하였다. 신영훈 글 김대벽 사진,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P.95

“이 집의 평면도는 동쪽에서 봐서 <用字形>이다. 중략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下半은 日字이고 上半은 月字이다. 이것을 합쳐서 <用字形>으로 한 것이다. 用字의 좌측 一角을 마굿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옥의 왼쪽을 日字形으로 표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日形> <月形>과 그 合形인 <用字形>은 하늘의 日月을 지상으로 불러서, 천지의 精氣를 화합시켜 생기를 받으려 하는 풍수적 방술이다. 이러한 풍수적 지식 없더라도 <日字形>, <月字形> 그 合字形인 <用字形>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해나 달이 하늘의 精氣이고 길상 吉祥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유형에 의해서 축복 받고자 하는 상식이기도 한 것이다.”³⁰⁾

고 하였다. 조선시대 전통주택의 풍수지리 해석에 있어 대체로 村山智順의 설이 정설인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설에 옳고 그름을 붙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村山智順이 제시한 도면에서 임청각의 평면은 用字 正字의 형태이다.(그림5. 참조) 그러나 실제의 평면형은 用字 正字의 형태가 아니다.



安東李氏家の 평면도(用字形)

- 1 大臣을 셋 낳는 방
- 2 不死의 문
- 3 退盜門
- 4 西門
- 5 靈泉
- 6 馬屋
- 7 內庭

그림 5. 村山智順의 임청각 평면도

村山智順의 말대로 도면의 下半이 日자가 되기 위해서는 下半에 사각으로 구획된 마당이 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구획된 마당이 하나밖에 없다. 구태여 문자로 말한다면 下半은 日자가 아니고 “길이가 긴 입 口자”라 할 것이며, 임청각의 문자형은 “긴 입 口자”와 “月자”가 합쳐졌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청각에서 日자와 月자가 합쳐서 用자가 되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다.³¹⁾ 그러나 用자에는 日자도 들어있고 月자도 들어있다. 日자와 月자가 합치면 明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굳이 상반과 하반으로 나누어 말할 필요가 없다.

日자와 月자를 합쳐서 用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억지와 같다. 이것은 用자의 象形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用자의 會意와도 일치하지 않는다.³²⁾

“하늘의 日月을 지상으로 불러서, 천지의 精氣를 화합시켜 생기를 받으려 하는 풍수적 방술이다”

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風水地理에는 이런 방술이 없다. 이것은 풍수지리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며, 자연의 합리성과도 전연 상관이 없는 것이다. 日月의 기운이 用자 모양의 집에만 내려오는 것도 아니며, 天地의 정기가 用자 모양의 집에서만 화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황당한 논술을 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에 길상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구, 그리고 타 주택과 차별을 두기 위한 생각으로 일부러 지어낸 설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用자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明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論旨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 혹시 동양학과 풍수지리에 대한 식견의 부족이 원인인던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굳이 用자의 吉象的 의미가 필요하다면, 四書五經 등 동양사상의 根幹을 이루는 문헌과 字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村山智順은 不死의 門, 退盜門 그리고 西門의 위치 등을 평면도에 표기하였으나,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退盜門(南門)의 위치에 실제로 문

31) 「조선의 풍수」의 내용 중에는 저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작성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기관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실제 사례와는 차이가 나게 되며, 또한 논지의 정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32) 字源에 의하면, ① 用字의 象形은 甬鐘이라는 종의 象形. ‘鑄’의 原字. 이 종의 꼭지를 잡고 들어 올리다의 뜻에서, 파생하여, 끌어 쓰다, 쓰다의 뜻을 나타냄.(민중 한학대사전, 민중서림, 2001, p.1356) ② 用字의 會意로서는 卜 + 中 → 用. ‘卜’은 점. ‘中’은 맞다. 옛날에는 점을 쳐서 맞으면 반드시 시행했으므로, ‘卜’과 ‘中’을 합하여 ‘쓰다’의 뜻을 나타내었다.(『동아 백년속편』, (주)두산동아, 2000, p.1253)

30) 村山智順, 앞의 책, p.p 662~664

이 없다. 그리고 不死의 문이라 하는 것은 안마당에서 서쪽마당으로 통하는 통로인데 그것이 왜 不死의 문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³³⁾

이런 '不死의 문'이나 '退盜門'이라 하는 것은 풍수지리도 아니요 양택론도 아니며,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지한 형이하학적 발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雜說은 풍수지리의 내용이 아닌 것까지도 풍수지리에 포함시켜 풍수지리처럼 해석하려는 억지가 되며 풍수지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임청각의 풍수적 해석을 엉뚱하게 한 사람이나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村山智順은 풍수지리에도 정통하지 않으며, 음양오행의 원리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도 窮究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동양학적 思惟가 충실치 못한 短見의 해석가일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³⁴⁾ 이러한 엉뚱한 해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朝鮮의 風水地理는 당연히 수준 이하의 미신적 단계라는 인식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풍수지리는 簡明하고, 臆說이 없으며, 調和와 順應의 理致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뒷사람들이 迷說을 곁들여 풍수지리의 본의에 먹칠한 것이 오늘날 풍수지리에 대한 일반적 편견을 낳게한 것이다.

(2) '쓸 用'字 篆字體說

玄斗鎔과 김광언은 村山智順의 설에 맞추어 文字形 주택을 풍수지리의 영향으로 해석하였으며, 住宅地의 풍수 물형을 동물·식물·물건·文字形 등으로 나누었다.³⁵⁾ 주남철은 주택의 문자형이 양택론에 의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 세 연구자는 대체로 村山智順의 견해에 동의하는 듯하다.

김광언(1988)은 村山智順의 문자형 해석을 여과 없이 그대로³⁶⁾ 따르고 있으나, 玄斗鎔(1977)은 임청각의 평면형이 用字 正字가 아니라 篆字體 用字임을 주장한다.³⁷⁾ 참고로 字典의 字源에 나오는 用자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 用字體³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村山智順과 김광언의 서술은 현장 답사를 통한 확인 과정에 소홀했던 것 같다. 用字 正字에는 글자 가운데 사각형이 네 개이다. 그러나 임청각은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세 개 밖에 없다.(그림 4, 5, 6, 7 참조) 만약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면 用字 正字 모양의 평면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반듯한 안뜰이 4군데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자형을 말하기 전에 현장에서 字劃의 일치 여부에 대해 검증했어야 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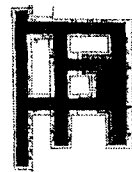


그림 7. 임청각 평면도에 나타난 문자형태³⁹⁾

(그림 7.)의 문자적 형태는 玄斗鎔이 말하는 바와 같이 用자의 篆字體와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청각의 문자형은 用字 篆字體라고 하여

33) 固城 李氏 安東宗會의 李鑰冀씨는 “그런 說이 있다고는 하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함. 바깥 행랑채 13칸 중에서 5칸을 마구간으로 사용했다는 설도 잘못된 것이라 함.

34) 「朝鮮의 風水」는 조선시대 풍수지리의 현대적 해석에 효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村山智順은 조선시대의 풍수지리를 형이하학적 측면으로만 해석하였다. 그것도 합리성이 부족한 측면을 부각시키며 원시신앙 쪽으로 강하게 유도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므로 「朝鮮의 風水」는 조선의 풍수지리를 왜곡하고 수준과 격을 낮추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저술이다. 더욱이 풍수지리에 능통하지 못한 村山智順이 자신의 해석을 임의로 첨가함으로써 풍수지리의 개념적 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앞으로 한국 풍수지리의 품격을 바르게 밝히는 수준 높은 연구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35) 玄斗鎔,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석론, 1977, p.87 김광언, 「한국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p.p28~30

36) “용자(用字)형은 해(日)와 달(月)을 지상에 얹힌 격으로 천지의 정기가 화합한 형상을 나타낸다. 안뜰의 임청각을 동쪽에서 보면 두 개의 동문(東門)과 네 귀가 반듯한 안뜰을 4군데에 배치하여 용자(用字)를 만들었으며 이 밖에 삼정승을 받으리라는 삼상산실(三相産室)과 장수하리라는 불사간(不死間),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퇴도문(退盜門)까지 두어서 풍수상의 표본을 이루었다. 한편, 용자형은 천지음양일월도합격(天地陰陽日月都合)자리라 하여 무덤자리로서도 뛰어난 것으로 손꼽았으며 서울 교외의 동구릉(東九陵)이 이와 같은 지세를 갖추었다고 전한다.” 김광언, 앞의 책, p.p 29~30

37) 玄斗鎔,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關한 研究」, 1977, p.69

38) 민중 한한대사전, 앞의 책, 2001, p.1356

39) 임청각 평면도에 색을 넣어 문자형태를 알기 쉽게 한 도면

도 좋을 것이다.

(3) 기타 설

鄭寅國(1974)은 임청각의 “평면은 日字土豪形”이라 하였는데⁴⁰⁾ 이것은 안마당과 서쪽마당의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훈(2000)은 “임청각의 전체적인 평면의 윤곽은 일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¹⁾ 이렇게 실제 평면 형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자를 거론한 것은 일자형에다 우물이 있는 마당까지를 고려했을 때 문자와 비슷하다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임청각의 평면형태에서 日자도 나타나고, 月자도 나타나는 등 해석의 애매함 또는 포괄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3 文字形 構造의 意味

이상의 고찰에서 임청각의 문자 형태는 전자체용자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글자는 ‘날 日’자와 ‘달 月’자 그리고 ‘밝을 明’자라 할 수 있다. ‘쓸 用’자에는 ‘날 日’자와 ‘달 月’자 그리고 ‘밝을 明’자가 숨어 있으므로 이 세 글자의 의미가 자연히 그 속에 포함된다.

(1) ‘밝을 明’字의 意味

‘밝을 明’자는 日月이라는 음양의 성질과 水火라는 오행의 성질을 두루 갖춘 글자로서 자연의 섭리를 갖추었으며 또한 그 의미가 밝음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좋아한 글자였다.

村山智順은

“日과 月이 따로 떨어져 병렬하는 明자보다는 日과 月이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글자 즉 用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음양의 冲和融合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⁴²⁾

40) 27.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 P.383

41) 신영훈, 김대벽, 앞의 책, P.89

42) “여기에 用字를 日과 月의 合字인(日月을 합친 문자는 문자 : 明字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明’으로 하지 않고 ‘用’으로 한 것은, 明字는 日月이 並列하는 것이지 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用字는 日月이 완전히 합하여 한 字가 되어 이것을 분리해서는 독립된 문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풍수에서는 陰陽의 冲和融合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일월을 합친 모양으로 吉祥을 구한 것이다. 분리할 수 있는 일월의 合字인 明字를 버리고 분리할 수 없는 用字를 쓴 것이다.” 해와 달을 합치면 明이 된다. 그러나 ‘밝을’ 明자에서 해는 해, 달은 달로 각각 떨어져 있다. 이것은 日月이 병렬하는 것이지 하나로 합한 것은 아니며, 陰陽의 冲和融合에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日과 月을 합치면 用자가 되어 陰陽이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로 作用하

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문자의 구성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음양오행의 理致에 미치지 못하는 短見에 의한 것이다.

日月은 晝夜를 밝히는 大吉象이며, 明자는 日月로써 대표되는 밝음을 의미한다. 해와 달이 비록 두 개의 物象이지만 밝음으로서는 하나이다. 낮은 해가 비추어서 밝고, 밤은 달이 비추어서 밝으며, 해의 밝음과 달의 밝음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一之二 二之一)⁴³⁾ 그래서 밤낮을 밝히는 대표적 물상인 해와 달을 합쳐서 會意한 것이 明자이다. 이것은 자연 현상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주택의 의미를 “밝음”에 두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日자와 月자를 떼거나 붙이거나 해야 한다는 억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明자가 日月과 함께 用자 속에 숨어 있어도 문자의 의미나 작용은 변하지 않고 恒常하는 것이다.

옛날부터 明자는 지혜와 덕성을 상징하는 글자로 사용되었다. ‘明主’는 어질고 사리에 밝은 임금, ‘明君’은 명철한 君主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에서 孔子墓 옆에 明倫堂을 세운 것이나, 成均館에서 儒學을 강학 하는 곳을 明倫堂이라 한 것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또한 ‘明堂’은 궁전에서 임금이 조례하고 정사를 돌보는 곳이며, 나라의 큰 典禮를 올리는 곳이다. 풍수지리에서의 ‘明堂’은 좋은 집이나 묘 또는 그 앞의 평지나 마당을 말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좋은 집’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用자 속에 日, 月, 明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임청각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임청각은 밝은 집이며, 군자의 집으로서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뜻을 가진다.

사람의 心性和 관련지으면, 「明心寶鑑」의 제목에서 보듯이 ‘明心은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임청각의 건축주가 천지자연의 道를 지향하는 진정한 학자였다면 日月의 밝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공부로서 인생의 事業을 삼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걸어로 드러내어 놓지 않으며, 주택의 문자형으로써 자신과 家門의 철학적 表象으로 삼되, 그것을 隱喻할 수 있는 주

로 밝을 明자보다는 ‘쓸’ 用자가 더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村山智順, 앞의 책, p.664

43) 日자와 月자를 떼던 붙이던 해는 해요 달은 달이며, 문자의 조작으로 해와 달의 작용(冲和融合)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택을 구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四書 중 마음을 밝히는 공부의 길잡이가 되는 「大學·中庸」에서 '明자'는 '明明德'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明자의 의미는 明德 즉,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곧 性稟을 밝히는 것이요, 道를 밝히는 것이다.

道를 밝힌이는 聖人이요, 밝힘에 나아간 이는 賢士요, 밝히려 하는 이는 士이며, 밝히려 하는 가답을 알지 못하는 이는 凡民이라 한다. 明자는 儒學者의 인생최고의 목표요 사명이요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대체로 해와 달의 밝음과 어두움, 人心의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생활을 포용하는 주택의 밝음과 어두움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었다. 日月의 작용과 인심과 집의 밝고 어두움은 조화와 순응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만물만사가 通明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사람의 관념에 의해 스스로 밝고 어두움의 상대적 견해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 「본디 밝음」에 합하려는 工夫가 바로 儒家, 道家의 근본 사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黃帝 軒轅氏로부터, 老莊과 孔孟으로 이어지는 동양사상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임청각의 문자형 구조에는 밝은 생활과 밝은 인간을 지향하는 道學的 風趣가 드러나 있으며 그 자취를 통해 옛 선비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임청각의 堂號가 陶淵明의 「歸去來辭」⁴⁴⁾에서 유래된 것이나 別당의 이름이 君子亭인 것도 동일한 맥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쓸 用'字의 意味

'쓸 用'자는 "쓰다"의 의미 외에도, "베풀다, 시행하다, 등용하다, 행하다, 다스리다, 통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작용, 용도, 씬씀이, 재산, 도구' 등의 의미도 있다.

易 乾卦의 '潛龍勿用'⁴⁵⁾에서는 '쓰다, 베풀다, 시행하다'의 의미가 있으며, 논어의 '焉用嫁'⁴⁶⁾에서는 '행하다 일하다'의 의미가 있고, 莊子の '用也者 通

也'⁴⁷⁾에서는 '통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易 계사전의 '顯諸仁 藏諸用'⁴⁸⁾에서는 '작용' 또는 '능력'을 의미하고, 莊子の '患其無用'⁴⁹⁾에서는 '용도'를 의미하며, 大學의 '有財此有用'⁵⁰⁾에서는 '씀씀이'를 의미한다. 또한 春秋左氏傳의 '利器用也'에서는 '도구나 연장'을 뜻한다.

또한 동양학의 體用論⁵¹⁾에서, '用'이란 '體用의 用'이다. 用은 天地萬物의 恒常한 作用을 의미한다. 사물을 本體와 作用으로 나누면 본체는 體가 되고 작용은 用이 된다. 사물을 原理와 應用의 두 측면으로 나누면 원리는 체가 되고 응용은 용이 된다. 체용을 우주에 비추어 보면 천지의 허공은 체가 되고 삼라만상의 生滅은 용이 된다. 사람에 비추어, 사람의 몸을 체라 하면 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用이 된다. 사람의 一舉手 一投足이 모두 用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생활 자체가 전부 체용의 용인 것이다. 그래서 用자는 인간의 삶과 생활을 뜻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주택에 대입하면 주택의 體는 집이 되고 주택의 用은 생활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어 생활하되 집과 사람의 생활이 체용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用자의 의미 중에는 사람과 집이 하나로 합일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집과 사람뿐만 아니라 집과 환경, 환경과 자연이 모두 하나로 합일하며 결국 천지자연과 주택 그리고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나라는 의미와 통하는 것이다.

47) 庸也者 用也 用也者 通也 通也者 得也(庸이란 쓸 用이다. 쓸 用은 통할 通이다. 통할 通은 얻을 得이다), 莊子 內篇 齊物論.

48) 顯諸仁하며 藏諸用하여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하나니 盛德大業이 至矣哉라(仁을 나타내며 用을 감춰서, 萬物을 鼓動하되 聖인과 더불어 함께 근심하지 아니하니 盛德과 大業이 지극하니라) 「易 繫辭傳」 上 5章.

49) 今子是 有大樹이나 患其無用이오(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쓸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소), 莊子 「內篇」 逍遙遊

50) 有德이면 此有人이오 有人이면 此有土이오 有土이면 此有財요 有財면 此有用이니라.(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쓰임이 있느니라), 「大學」

51) 사물을 本體와 作用, 原理와 應用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용용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양자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중략... 용은 체의 작용이며 체는 용의 본체로서, 이 두 가지는 개념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실체로는 분리될 수 없는 동시적 합일적 존재라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체는 모든 원리와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가능태로서의 실체로 설명되며 용은, 본체가 현상계에서 실제적으로 유행. 발현되는 끊임없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교대사전」, (1990.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체용론 참조

44) 「登東阜以舒嘯, 臨清流而賦詩」, 고성이씨안동중회, 앞의 책, p.5. 이완규, 「안동 풍수 기행」, 「와혈의 땅과 인물」, 예문서원, 2001, P.183

45) 初九는 潛龍이나 勿龍이니라(초구는 잠긴 용이니 쓰지 말지니라), 周易 上 乾.

46) 夫如是則四方之民이 襁負其子而至於我니 焉用嫁리오(이렇듯이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아이를 포대기에 지고 이르니 어찌 농사를 하리오)

동양사상의 전통은 환경을 사람과 함께 일체로 보는 特長이 있다.⁵²⁾ 이는 사람과 집과 자연을 일체로 보며 상호관련과 조화에 근원을 둔 것이다. 동양의 학문은 분석적이기보다는 상대적 연관성과 총체적 합의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用자의 의미는 동양사상의 전통과 일치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 사이에 체용론은 일반적인 개념이었다. 체용론은 상식적이면서 道學의 근본을 지칭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임청각은 천지자연의 道가 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나타낸다. 바꾸어 말해, 천지의 음양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듯 사람과 집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도리를 암시한다. 즉, 임청각은 그 문자 형태에서 인간의 삶과 생활이 用자 한 글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과 인생이 자연과 하나라고 하는 전통적 진리를 표방하고 있다.

4. 臨淸閣의 宅法

4-1 宅法の 概要

陽宅書의 이론은 東四宅과 西四宅을 따지며 三要 - 門·主·灶의 방위를 길방으로 앉히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조선시대의 선비사회에서 동사택과 서사택을 따지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었으므로 조선시대의 班家は 당연히 삼요의 방위가 동사택과 서사택에 맞추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古宅을 살펴보면 동서사택의 원리만으로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명당을 잡아 문·주·조의 배치를 살펴보면 동서사택의 원리만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집의 규모가 커지면 마당의 수가 많아지고, 마당의 수가 많아지면 동선의 배치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기게 된다. 명당의 坐와 向에 맞아야 하며, 朝案과 水口(得水)에도 맞추어야 할 뿐 아니라 實用과 變容 및 확장에 대한 방법과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택법은 陽宅書의 내용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택법은 양택서의 이론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그리고 음양오행의 원리를 종합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주택설계에서도 음양오행, 풍수지리, 택법 기타의 원리 원칙으로 분석하고 格局과 물형을 통하여 종합하였다.

여기서 종합되는 것이란 주거생활 속에 나타나는 情緒와 心理, 實用과 變容, 象徵과 아름다움의 調和와 相生이라 할 수 있다. 주거생활은吉凶으로 판정되며, 주택은 吉宅과 凶宅으로 나누어진다. 길흉이란 자연환경과의 조화이며,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나타난 相生相剋의 결과인 것이다.

택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집터와 집과 사람이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 (㉡) 內外 區分과 主客 區劃이 이루어져야 한다.
- (㉢) 來龍과 坐向이 맞아야 한다.
- (㉣) 東四宅과 西四宅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 淨陰과 淨陽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 羅星, 水口 등 자연의 구조가 吉方을 얻어야 한다.
- (㉦) 門·主·灶 등 주택의 구조가 吉方을 얻어야 한다.
- (㉧) 터와 집의 局體가 陰陽五行의 調和와 相生의 이념에 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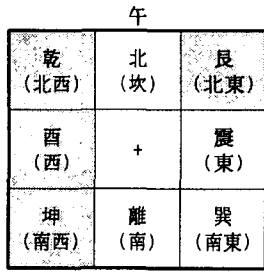
주택의 조성에 사용되는 풍수지리의 원리는 주로 胞胎法, 三合, 淨陰淨陽의 원리가 대표적이다

(1) 東西四宅法

동서사택법은 양택에서 주로 다루는 방법이며 택법의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동서사택은 동사택과 서사택을 말하며, 이것은 팔괘와 오행의 相生相剋에서 연유한 것이다. 팔괘를 팔방에 배속하고 오행의 相生相剋으로 분류하면 길한 방위와 흉한 방위가 각각 4位씩 나누어진다. 동사택은 吉한 방위가 주로 동쪽편에 배속되며 坎(북), 震(동), 巽(남동), 離(남)의 방위이고, 서사택은 吉한 방위가 주로 서쪽편에 배속되며 坤(남서), 兌(서), 乾(북서), 艮(북동)의 방위이다. 주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공간 즉, 門과 主(머리)房, 그리고 부엌(灶)을 三要라 하며, 삼요를 길방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택위와 서사택위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길방이란 오행에서 相生의 방위를 말한다.

52) 장백기, 「老子 道德經과 建築學의 定義考」, 대한주거학회 지 제12권 3호 참조



□ 東四宅, ■ 西四宅
그림 8. 八宅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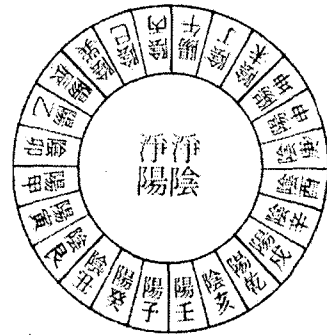


그림 9. 二十四位 所屬 陰陽圖

(2) 淨陰淨陽

나침반의 24방위에서 陰의 방위는 음의 방위대로, 陽의 방위는 양의 방위대로 나누는 방법이다. 「人子須知」에 의하면,

先天(河圖)인 남(乾), 북(坤), 동(離), 서(坎)의 四正卦에다 洛書(後天)의 一, 三, 七, 九의 양수를 배속시킨 것을 淨陽이라 하고, 先天인 艮(북서), 震(북동), 巽(남서), 兌(남동)에다 洛書 二, 四, 六, 八의 음수를 배속시킨 것을 淨陰이라 한다. 각 干支가卦의 통술을 받는 음양이지만 이것을 음양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정음정양이라 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陽龍은 반드시 陽向이고, 陽水가 오고가면 길하고, 陰이 섞이면 흉하며, 陰龍은 반드시 陰向이고 陰水가 오고가면 길하고 陽이 섞이면 흉하다.⁵³⁾

하였다. 나침반의 24방위는 12位가 陽이 되고 12位가 陰이 된다. 乾甲坤乙坎癸申辰離壬寅戌은 陽位이며, 艮丙巽辛兌丁巳丑震庚亥未는 陰位이다.

중요한 실을 배치할 때에 坐가 陰의 방위이면 주요 실의 배치도 陰方으로 배합하고, 坐가 陽의 방위이면 주요 실의 배치도 陽方으로 배합하는 방법이다. 陰位는 음위대로 陽位는 양위대로 배합한 것을 吉한 배합이라 하고, 음위와 양위가 섞이는 것을 凶한 배합이라 한다.

이것은 동서사택법에서 음위와 양위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음정양의 위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정음정양법은 풍수에서 사용하는 법식이지만 주택에서 동서사택의 길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에 많이 사용하였다.

(3) 三合法

三合法은 淮南子 天文訓에서 처음 나온다. 天文에서는 三辰이라하고, 地理에서 雙山五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삼합이라 부른다.

十二支를 五行에 배당하면 木(寅·卯), 火(巳·午), 土(丑·辰·未·戌), 金(申·酉), 水(亥·子)가 되는데, 이 가운데 卯(木), 午(火), 酉(金), 子(水)를 正位로 삼고, 이 正位를 각 五行의 壯(旺)으로 하고, 거기에 四辰前을 生, 四辰後를 死(墓)로 설명한 것이다.⁵⁴⁾

다시 말해 十二方位 중 木·火·金·水에 해당 하는 네 방위가 그性情에 따라 서로 화합 보조하여 결합한 것이다. 十二方位를 五行으로 분류하면 중앙 土를 제외한 金, 水, 木, 火가 각각 세 개의 방위를 가지며, 이것을 포태법으로 운회하면 生方과 旺方 그리고 墓方으로써 각각 하나의 局을 이루며, 金局(巳酉丑), 水局(申子辰), 木局(亥卯未), 火局(寅午戌)의 네 局을 가진다. 택법에서는 坐向과 得水와 三要 등의 배치에 삼합을 사용한다.

(4) 胞胎法

건물의 向을 잡을 때 來脈의 방향에 대하여 각각으로 건물을 앉히는 것이 땅의 기운을 많이 받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來脈과 坐向, 朝山과 案山, 그리고 水法 등 제반 조건이 전체적 조화를 깨트릴 때에는 다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 때에 주로 포태

53) 서선술·서선계, 김동규 역, 「인자수지」, 불교출판사, p.991

54) 劉安 편저, 安吉煥 편역, “淮南子”, 「천문춘」, 명문당, 2001, p.p 162~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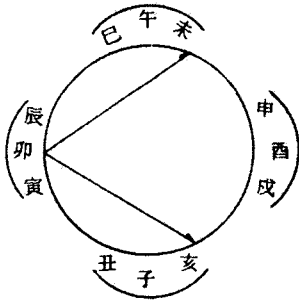


그림 10. 三合圖(木局)⁵⁵⁾

법을 사용한다. 風水에서는 坐向과 水口 등의 방위를 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방의 방위를 12단계로 나누어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고 생로병사의 人生路程을 따라 단계별로 이름 붙인다. 어머니의 胎에 들어서부터 출생까지 4단계(胎胎養生), 그리고 성장의 단계를 거쳐 왕성한 활동기까지 4단계(浴帶冠旺),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묻히기까지 4단계(衰病死墓) 총 12단계의 運으로써 一週하게 한다. 12運의 輪回는 宅地의 坐에서 시작하는데 吉運에 해당되는 방위를 선택한다. 生方을 長生方이라 하고 旺方을 帝旺方이라 하며 제일 吉方으로 친다.

주택의 방위를 볼 때에는 주로 生方과 旺方을 선택하여 向을 잡는다. 물이 오고가는 방향에 따라 左旋水 또는 右旋水로 나누며, 運회의 방향은 물의 흐름에 맞추어 좌선 또는 우선으로 돌게 된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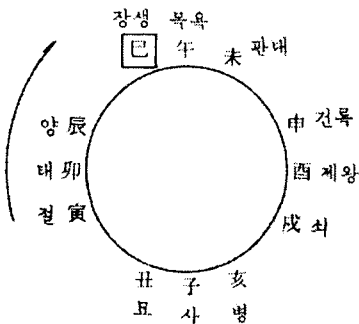


그림 11. 胞胎法의 輪回圖(左旋)⁵⁷⁾

4-2 임청각의 택법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청각에 있어서도 동서사택을 주로 하는 양택서의 원리만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임청각의 택법을 알기 위해서는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원리 그리고 문자형을 통한 종합적인 관찰을 하게 된다.

임청각 뒷산에서 내려오는 맥은 두 갈래져서 하나는 사당 쪽으로, 또 하나는 안채 쪽으로 흐른다. 사당은 뒷산의 맥을 바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용자형 안채로 흐르는 맥은 집 뒤에서 뚝 떨어지며, 퍼져서 넓어지는데 艮坐이다. 터의 높이는 사당, 군자정, 안채 순이다. 得水는 사당이 甲方이며 군자정과 안채는 卯方이다. 각 건물의 좌향은 안채와 君子亭이 亥坐巳向이며, 사당은 壬坐丙向이다.

(1) 좌향과 포태법

안채와 군자정의 來脈은 艮脈이고 좌향이 亥坐巳向이므로 艮方에서 포태법을 시작하면 巳方은 生方이다. 사당의 來脈은 壬脈인데 壬方에서 포태법을 시작하면 丙方은 冠方이다.

안채와 군자정은 生方으로 제일 吉方을 취하였으며 사당도 제일 길방은 아니지만 길방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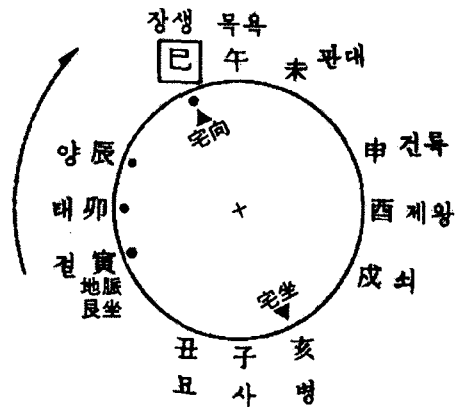


그림 12. 임청각의 포태법도

(2) 안채의 배치

임청각의 용자형 안채는 다섯 개의 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각 마당의 길흉보기의 우선순위는 안마당이 1번, 우물마당이 2번, 안행랑으로 보이는 서쪽마당이 3번이다. 남쪽에 있

56) 左旋 : 시계 방향, 右旋 : 반 시계 방향

57) 申天浩, 「陰陽五行의 概論」, 明文堂, p.74

55) 申天浩, 「陰陽五行의 概論」, 明文堂, p.66

는 두 마당은 행랑마당으로서 높낮이가 한 층 정도 낮으며 우선 순위 또한 뒤 떨어진다. 우물마당의 靈室이 있는 채는 여성용 공간으로 보인다. 宗會에서도 안노인이 거주하던 안사람으로 보고 있다.⁵⁸⁾

1) 東西四宅

안채는 亥坐로서 서사택이다. 門·主·灶의 방위도 서사택 位를 얻어야 좋다.

안마당에 있는 두 문의 방위를 보면 卯方(震方)과 未方(坤方)이다. 서쪽마당으로 통하는 未門은 서사택에 맞으며 동쪽마당으로 통하는 卯門은 동사택으로 길방이 아니다.

主(頭房)의 방위는 안방이 戌方(乾方)이고, 안방의 아랫방이 庚方(西方)으로 두 방이 서사택의 吉方을 얻었으며, 兩頭房이다.

부엌은 艮灶로서 서사택 위를 얻어 길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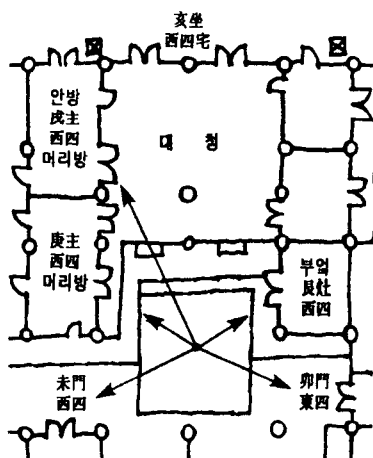


그림 13. 임청각 안채 동서사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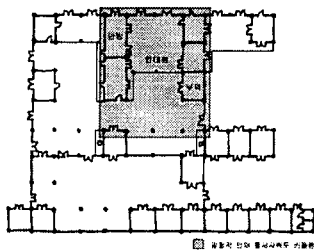


그림 14. 임청각 안채 동서사택도 키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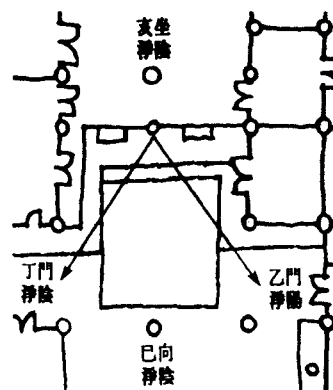


그림 14. 임청각 안채 정음정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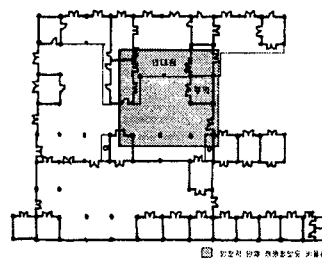


그림 15. 임청각 안채 정음정양도 키플랜

안채의 방위는 坐와 向이 모두 亥坐와 巳向으로 陰位를 갖추었다. 안마당에는 문이 두 개인데, 서쪽 마당으로 통하는 문은 乙方이며, 동쪽 마당으로 통하는 문은 丁方이다. 乙方의 門은 陽의 방위로서 정음에 맞지 않으나 丁方의 門은 陰의 방위로 정음에 맞아 길방이다

3) 三舍

안마당에서 동쪽 마당으로 통하는 문은 안채의 주출입구로 중요한 문이다. 그러나 동서사택법이나 정음정양법에 모두 맞지 않는 흉방이다.

동서사택법의 어려움 중 하나는 서사택에서 동쪽으로 문을 내거나, 동사택에서 서쪽으로 문을 내어야 할 경우이다. 동서사택법만으로는 문의 위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정음정양에 맞추어 보거나 삼합으로 맞추어 보게 된다.

안마당의 두 문의 방위가 卯方과 未方이므로 이

58) 우물마당에서는 나침반 중심잡기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택법의 적용에도 혼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것을坐와 함께 맞추어 보니 亥卯未 三合이 된다. 안채의 주출입문이 삼합 木局이며, 生方, 旺方, 墓方 중 旺方에 해당하는 길방위를 얻은 것이다.

안채의 水口(得水)가 卯方(東)임을 생각하면, 물(水氣)이 東쪽의 卯門으로 바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水生木의 相生⁵⁹⁾이 된다. 안채의 삼합도 木局이므로 水口와 안채가 상생이 되며, 수구와 안채 문도 모두 확실한 水生木의 상생관계를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것은 풍수지리에서 財物을 관장하는 물의 기운을 의도적으로 안채 문으로 직통하게 설계한 것이며, 설계자가 동서사택법과 정음정양법에 맞지 않는 문의 위치를 선택한 까닭이 된다. 결과적으로 임청각의 설계에서는 水法의 상생 원리를 동서사택이나 정음정양과 함께 중요한 법식으로 채용하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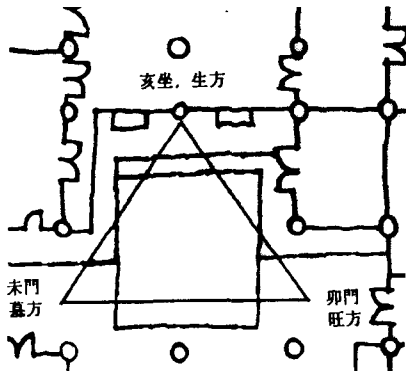


그림 15. 임청각 안채 삼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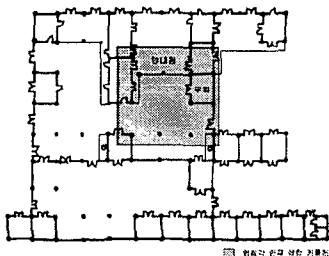


그림 15. 임청각 안채 삼합도 키플랜

(3) 君子亭

1) 東西四宅

군자정은 亥坐로서 서사택이다. 문과 주의 방위를 보면, 문은 巳문으로 동사택이다. 主(頭房)는 乾方으로 서사택을 취하였다. 문의 방위가 동서사택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음정양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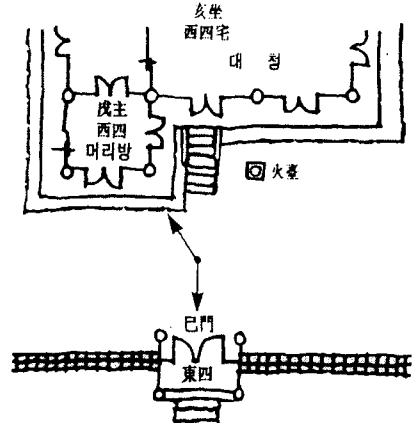


그림 16. 임청각 군자정 동서사택도

2) 淨陰淨陽

군자정의 來龍은 亥坐로서 陰龍이다. 정음정양에 맞추려면 좌향과 문의 방위, 물의 방위 등이 陰位에 있어야 길하다.

군자정의 坐向은 亥坐, 巳向이 모두 陰位이다. 문도 丙方으로 陰位를 얻어 길하다.

물의 흐름은 左旋水로서 陽水이지만 得水가 卯方으로 陰位를 얻어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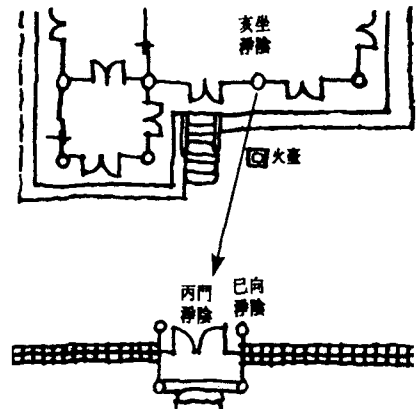


그림 17. 임청각 군자정 정음정양도

59) 五行의 相生 관계 -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木 → 火 → 土 → 金 → 水 → ...)

(4) 사당

1) 東西四宅

사당은 壬坐로서 동사택이며, 문도 丙門으로 동사택위를 얻었다. 水口(得水)가 甲方으로 포태법의 生方을 얻어 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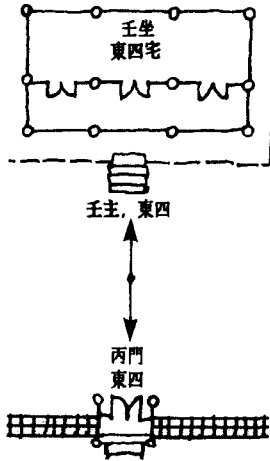


그림 18. 임청각 사당 동서사택도

4-3 택법의 요약

임청각은 양택서의 중심 이론이 되는 동서사택법 외에도 풍수의 법식을 주택에 사용하였다. 동서사택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음정양법, 삼합법, 포태법을 동시에 사용하며, 三要가 길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임청각의 宅向은 포태법의 생방에 맞추었다. 출입문은 동서사택법에 맞춘 것이 2개소, 정음정양법에 맞춘 것이 2개소이며, 그 중에서 동서사택법과 정음정양에 다 맞춘 경우가 1개소이다. 특히 안채의 주출입문은 동서사택법과 정음정양법에 모두 맞지 않는 반면, 삼합법에 맞추어 亥卯未 木局으로 水口(得水)方位와 함께 相生의 관계에 있도록 하였다.

부엌과 머리방의 방위는 동서사택법에 잘 맞는다. 모두 동서사택의 길방에 맞추었다.

5. 결론

이상으로 임청각의 문자형의 의미 그리고 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청각의 평면형태는 吉地와 吉宅의 원리를 文字를 통해 주택에 도입한 사례이며, 풍수지리와 宅

표 1. 임청각의택법 적용표

구분		마당명		안마당	사랑마당	사당마당
		門	主			
東西四宅法	門	東四				○
		西四	×, ○	×		
	主	東四				○
		西四	○, ○	○		
	灶	東四				
		西四	○			
淨陰淨陽法	門	淨陰	×	○	○	
		淨陽				×
三合法				亥卯未木局		
胞胎法				生方	生方	冠方

○ : 길방, × : 흉방

法, 그리고 吉祥文字形에서 유래한 것이다.

임청각은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의 원리를 두루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설계 요점과 주요 원리가 적절히 배합되어 調和와 相生의 理念에 합하였다

좌향을 잡는 데에는 胞胎法을 사용하였으며, 門의 위치를 정함에는 東西四宅法과 淨陰淨陽法을 주로 사용하였다. 특히 안채 문을 水口와 맞추어 三合의 旺方이 됨과 동시에 집의 坐와 함께 相生關係를 가지게 한 것이 특별하다.

主, 灶 등 각 실의 배치에는 東西四宅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채간의 배치과정에 동서사택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음정양법을 사용하고, 정음정양법에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삼합에 맞추었다.

임청각의 설계는 동양사상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밝은 생활과 밝은 인간을 지향하는 道學的 風貌가 엿보인다.

임청각은 '자연발생적인 文字形'이 아니라 주택계획 당시부터 '의도된 文字形'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임청각의 대표적 문자는 '쓸 用'자이며, 숨어 있는 문자는 '날 日', '달 月', '밝을 明'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쓸 用'자의 의미에는 體用의 用 즉, 천지만물의 恒常한 作用을 나타내며, '밝을 明'자의 의미에는 儒學者의 至高한 목표인 明明德의 明자를 표상화 함으로써 儒學의 本源에 合하고저 하는 의지를 보

였다. 이것은 大儒君자의 기상인 것이다.

臨淸閣은 전통사상을 계승하여 表象化 했으며, 風水地理와 陰陽五行에 기반한 宅法 그리고 ‘의도된 文字形’이 두루 갖추어진 특이한 조선 古宅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참고 문헌

1. 「周易」世昌書館, 備旨具 解, 1983
2. 「老子 道德經 憨山解」, 琉璃經房印行, 民國63年
3. 「大學中庸」明文堂, 金赫濟 校閱, 1986
4. 「四書大要」反古書堂, 盧珪鉉, 2001.
5. 「栗谷全書」,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원,, 1992
6. 「法寶壇經」, 불광선문총서, 1991
7. 「漢韓 明文大玉篇」, 明文堂, 1992
8. 「유교대사전」,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 1990.
9. 洪萬選, 장재한 외 역, 「山林經濟」,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10. 徐有渠, 「林園經濟志」,보경문화사, 1983.
11. 徐善繼·徐善述, 金東奎 譯, 「地理 人子須知」, 佛敎出版社, 1982
12. 孫瑜憲, 「易斷繪圖民宅三要」, 6冊, 慶南 密陽, 竹訥窩, 1929
13. 卜應天則魏甫, 「地理正解 雪心賦」, 臺灣 竹林書局, 中華民國 72年
14. 趙九峰, 「陽宅三要」, 上海 瑞成書局
15. 申天浩 편저, 「陰陽五行의 概論」, 明文堂, 1982
16. 韓長庚, 「易學原論」, 學友社, 1950.
17. 村山智順·崔吉城, 「朝鮮의風水」,民音社, 1990
18.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
19. 김광언, 「한국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20.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1999
21. 신영훈·김대벽, 「한옥의 향기」, 대원사,1999
22. 玄斗鎔,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77.
23. 張百基, 「老子 道德經과 建築學의 定意考」,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3호, 2001
24. 固城李氏安東宗會, 「固城李氏安東尊居 淵源과 文化遺産」, 1993, 2

A Study on the Meaning of Letter-Shaped House Plan and the Housing Principles of the Imchonggak in Andong

Jang, Baec-Kie

(Associate professor, Busan Info-Tech College)

Cho, Sung-Ki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letter-shaped house plan of the Imchonggak in Andong and to Analyze its housing principles.

The letter-shaped house plan of the Imchonggak lays its root in the traditional Eastern thoughts,

showing feature of Taoism. The Imchonggak applied the principles of a good land and a good house, which are originated from the Yonyang theory, Five elements theory, Poongsochiri, housing principles and letter shapes of good fortune.

The letter shape of the Imchonggak is 用(as below), and 日, 月, and 明 are contained in it. The letter 明 means brightening the mind and life of human being by himself. The letter 用 is shaped to express the idea of Cheayong Theory of Confucianism, which refer to everlasting interaction of all thing in the universe.

In applying the housing principles, Potaebob was used for the orientation of the house. Samhabbob, Jungeomjungyangbob and Dongsusataebob were utilized to locate the gate. In addition, Dongsusataebob was used for the positioning of rooms in most cases.

The Imchonggak succeeded traditional Eastern thoughts and it realized the concept and philosophical idea of Confucianism as a house.

What is important in the house plan of the Imchonggak is that it represents the ideal of Confucians in Chosun Dyansty that the man, house, nature, and universe are one. It also advocates ideology of Confucianism which emphasizes that a human life can be completed when man live together with the nature and harmonize themselves with it.